

感謝의 글

망설임과 설레는 마음을 멀리하고 不惑의 나이에 大學院生活을 시작하여 이제는 하늘의 命을 안다는 知命의 50대가 되었습니다. 늦게 시작한 學文이었기에 더욱 더 苦悶하고 아파했던 순간들과 술한 事緣들이 走馬燈처럼 지나갑니다.

어려운 삶 속에서도 恒常 孝道해야 한다는 마음을 간직하면서도 여전히 不孝로 남아있는 小生에게 오늘의 健康한 삶이 있게 해주신 年老하신 어머님과 世上을 떠나 계신 아버님께 이 論文을 바칩니다.

苦難과 逆境이 있을 때마다 恒常 곁에서 따뜻한 마음과 밝은 微笑로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며 어려움을 함께 한 사랑하는 아내 朴 雲子에게 이 조그마한 영광을 바칩니다.

大學校 卒業 후 進路 문제로 가슴 아파하더니 이제는 어엿한 警察官이 된 귀여운 딸 志映이와 머리만 믿고 努力이 不足하다고 엄마한테 매번 혼나더니만 지금은 前方에서 國防의 義務를 다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玟赫이에게 앞날에 榮光이 있기를 祈願하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

挫折할 때면 언제나 옆에서 激勵와 指導를 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李 泰鴻 指導教授님께 머리 숙여 感謝드립니다. 그리고 審査過程에서 많은 助言과 指導를 해주신 南 孝惠 教授님, 南 泰喆 教授님, 朴 楨日 教授님과 慶北大學校 컴퓨터工學科 金 恒俊 教授님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.

大學院生活동안 함께 同苦同樂하며 어려운 環境에서도 恒常 힘이 되어준 映像通信 研究室 여러분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. 또한 바쁜 業務중에서도 勉學의 雰圍氣를 이끌어 준 職場 先後輩 同僚들에게도 感謝드립니다.

삶이 곧 배움의 연속이라는 敎訓을 항상 가슴에 지니며 오늘도 생각하며, 깨어 있는 姿勢로, 나에게 주어진 일에 最善을 다 할 것이며, 謙遜하며, 貪慾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努力하겠습니다.

2001년 12월
張 正 東